

순천만정원, 생태관광지 자리매김

아이정원 주제 14개 프로그램 호응
연휴 33만명 방문·220억 경제효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 3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행복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순천만국가정원에는 3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 220억 원 규모의 직접 및 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순천시 전역의 식음, 숙박, 주유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며, 정원이 순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1(아이)-정원'을 주제로 14종의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4일과 5일에는 각각 12만명, 7만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순천 도심 전체가 들썩었다. 4일에는 12만6,000명이 방문하

며, 올해 1일 최다 관람객을 경신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충전소'로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최고의 명소가 입소문이 났다.

정원 곳곳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1(아이)-정원' 특별 프로그램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획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모그 버블쇼와 에어 이글루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테라피가든에서는 수제 과일청, 향수, DIY 데코텐 빗겨울 등 각종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부모와 자녀, 조부모 세대까지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체험장이 펼쳐졌다.

어린이동물원에서는 사육사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생물들의 생태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비바리움 특별 전시도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가족 포토존 '주주네켓'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사진을

남기며 소중한 추억을 기록했다.

자연 속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미니운동회, RC보트, IP블럭존, 버드존, 모래정원에서의 체험과 퍼포먼스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생태관광지의 상징을 넘어 글로벌 정원 문화의 표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이번 '1-정원'은 자연과 놀이, 체험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세대 간의 공감과 행복을 잇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순천만국가정원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초록 가득한 정원 속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국내 제1의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1(아이)-정원'을 주제로 14종의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순천시 제공

여수시, 10번째 웹드라마 '그림자' 제작 돌입

여수시는 오는 6월 배포를 목표로 열 번째 웹드라마 '그림자' 제작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MZ세대의 휴먼스토리로 '어둠 속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냈다.

고장난 패종시계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넘

나들며 여수시 근현대사의 비극인 '이아포 사건'과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 사건'을 교차, 단순한 관광 콘텐츠를 넘어 역사적 메시지와 사회적 통찰을 담았다.

웹드라마 '그림자'는 1화 '시간여행', 2화 '기억의 섬', 3화 '데칼코마니', 4화 '어둠을 지나', 5화 '빛을 향해' 등 총 5화, 50분 내외로 제작된다.

촬영지는 율촌 벚꽃길, 율촌역, 여자만 상봉데크길, 반월마을, 선소, 안도, 예술랜드 대관람차 등 여수의 숨은 명소를 알려졌으며, 지난 4월 촬영을 마쳤다.

앞서 여수시는 2015년 '신지끼의 사랑이야기'를 시작으로 2024년 '하멜'까지 총 9편의 관광 웹드라마를 제작, 국내외 웹페스트 어워즈에서 꾸준히 수상하며 콘텐츠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국제 웹페스트를 개최, 76개국에서 1,306편의 웹콘텐츠를 출품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여수=곽재영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곡성우체국, 지역 아동에 소원선물 전달

곡성우체국은 가정의 달을 맞아 곡성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 29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선물 전달 행사는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은 아동들이 자신의 소망을 편지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이 그 소원을 선물로 실현해주는 지역 나눔 프로젝트다. 곡성우체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다.

정정호 국장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소원을 들어주는 이 행사는 우체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식 중 하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곡성=류성 기자



대영약품, 곡성군에 파스 1만3600매 기부

㈜대영약품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곡성군에 파스 1만3,600매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곡성노인맞춤돌봄센터와 심정노인복지센터에 전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1,624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종선 ㈜대영약품 대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서비스 지원하게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상래 군수는 "기부품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류성 기자



장흥군 관산읍지사협, 행복한 합동 생신상

장흥군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산읍 우산마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11명에게 합동 생신상을 차려드렸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 합동 생신상 '만수무강하세요'는 자녀들이 멀리 있어 챙기지 못하는 쓸쓸한 생신을 마을 주민들이 축하해주는 사업이다. 관산읍여자울 방법대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산지정기탁금 활용해 생신상을 장만했다.

사산환 민간위원장은 "농번기가 시작되어 바쁜 시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생신상을 마련해 준 관산읍자율방범대 여성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히 오래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신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지난 5일 담양대나무축제 부대행사로 열린 '제3회 담빛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에서 예선을 통과한 전국 12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담양대나무축제, 글로벌축제로 물들었다

야간 경관·체험 콘텐츠 호평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열렸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초록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 축제는 생태,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해외 인플루언서와 유학생들이 개막식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거 참여해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죽녹원과 축제장 일대, 관방제림에는 '대나무 소망등' 등 야간 경관이 조성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했다. 죽녹원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일일 최대 2만여명이 찾는 등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권을 환급형 쿠폰으

로 전환해 인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으며, 주민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돋보였다. 향토음식관을 통해 담양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죽순을 활용한 신메뉴 경연대회에서는 '들깨크림 죽순만두' 등 5개의 독창적인 메뉴가 선정돼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죽순의 다양한 활용성과 지역 식문화 발전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공원과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졌다. 이찬원, 김경호밴드, 김태연, 황가람 등 대중가수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한 무대는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베베핀' 공연, 담빛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드론 체험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담양=정일남 기자

뇌물죄 징역형 순천시의원, 사직서 제출

뇌물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순천시의회 최병태(왕조1)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순천시의회는 7일 최 의원이 시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직 사유로 '일신상의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회는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순천=박경식 기자

장흥군,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완료

장흥군은 관내 지적기준점 2,007곳에 대한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점으로, 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토지 경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현장보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

했으며 도로정비,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교체 등 각종 공사로 인해 112점이 망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흥군은 망실된 지적기준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고,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신설할 계획이다. 각종 공사로 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시행 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해 망실·훼손된 기준점 신고 등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